

국내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관한 요인

임영명¹, 차태현^{2*}

¹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²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Factors on the Types of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for the Disabled persons in Korea

Young-Myoung Lim¹, Tae-Hyun Cha^{2*}

¹Dept. of Occupational Therapy, Graduate School, Konyang University

²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o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국내 장애인의 여가제한 요인이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원자료 변수를 내적제한과 외적제한 요인 그리고 여가활동은 수동적/능동적 참여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내적/외적제한과 여가활동 참여유형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동적 여가활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적제한 2개, 외적제한 3개 변인의 설명력은 48%, 능동적 여가활동은 내적제한 2개, 외적제한 5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9%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내 장애인들의 다양한 제약요인을 바탕으로 여가활동의 참여 촉진을 위해 방안이 마련되어야하며, 여가와 장애에 관련된 두 학문적 주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검토와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국내 장애인, 여가활동 유형, 여가제한,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 of leisure barriers on participation type of leisure activities in disabled in Korea. The raw data variable of '2014 Disabled People Status Survey' were categorized as internal/external barriers and leisure type. The type of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was performed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correlation and causal relationships of types of internal/external constraints and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The element that effects on a level of current passive leisure activity type, it resulted as two variables of internal barriers, three variables of external barriers, the explanation ability was analysed as to 48%. it resulted as two variables of internal barriers, five variables of external barriers in active leisure activity, five variables of external barriers, the explanation ability was analysed as to 29%. Therefore, based on various constraints of disabled people in Korea, a plan should be prepared to encourage participation of leisure activity, and systematic review and detailed study on two academic subjects related to leisure and disability should be done.

Key Words : Convergence, Disabled in korea, Leisure activity type, Leisure barriers

1. 서론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에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는 대상을 의미한다[1].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 장애 인구는 2,726,910명으로 나타났다[2]. 장애인들은 교육, 노동, 문

*Corresponding Author : Tae-Hyun Cha (taehyun@konyang.ac.kr)

Received June 14, 2018

Accepted August 20, 2018

Revised July 24, 2018

Published August 28, 2018

화, 체육 등의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보인다[3].

여가활동은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과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며, 원만한 사회적 관계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4]. 또한 개인의 건강 증진[5], 문화 행사 및 종교 활동, 외출 등의 여가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장애인의 의미 있는 여가활동은 장애를 극복하고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접근방법이다[7].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로 인하여 여가활동의 참여 욕구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참여욕구를 나타내고 있다[8]. 하지만 국내 장애인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는 다양한 제약요인으로 참여율이 낮은 수준이다[2].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수준은 개인의 특성과 신체적 요인, 사회적 요인, 관련 정책 사항에 따른 요인 등의 다양한 요인을 통하여 제약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11]. 여가활동의 제약요인은 장애인들의 즐거움, 만족감, 삶의 질 등을 누릴 수 있는 경험의 기회가 감소하게 된다[12].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여가활동에 참여, 촉진 및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6].

장애인들은 교육, 노동, 문화, 체육 등의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국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참여에 직면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요인분석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여가활동 참여 증진 및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참여와 관련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요인을 극복하도록 실천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바탕하여 국내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국내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와 관련된 내적제약 요인, 외적제약 요인이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장애인의 여

가활동 참여유형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국내 장애인구의 인구학적 특성과 장애유형별 특성 그리고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판별조사표와 심층조사표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특성과 보건의료/건강, 일상생활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2 자료정리 및 변수 선정

국내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 신체적 요인, 사회적 요인, 관련정책적인 요인이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최종분석대상은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참여한 총 6824명 중 만 20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으로 제한하였다. 총 6555명의 데이터를 추출하였으며, 이외 나머지 데이터는 제외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1.3 변수의 구성

1.3.1 종속변수

분석 자료의 여가활동 참여유형은 총 16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Kleiber (1980)이 제시한 수동적, 능동적 참여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수동적 참여는 감상/관람, TV시청, 컴퓨터/인터넷, 창작적 취미, 독서/신문/잡지, 가족관련 외식, 휴식(사우나)이며, 능동적 참여는 승부놀이, 스포츠, 학습활동, 사회(자원봉사), 여행, 사교일, 해외여행, 가사잡일, 기타로 분류하였다.

1.3.2 독립변수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정하기 위해 Francken와 Van Raaij (1981) 등이 제시한 내적제약과 외적제약 요인으로 재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내적제약은 개인의 역량, 능력, 지식, 흥미 등으로 원하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며, 외적제약은 개인의 상황, 금전 및 시간 부족, 교통수단 등의 원하는 상태로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정의하였다[9]. 본 연구의 내적제약 요인은 장애등급, 학력, 혼자 외출여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이며, 외적제약 요인은 가구소득(월평균), 치료 이용여부, 교통수단 이용 어려움 수준, 장애인보조기구 활용, 정보통신기기 활용, 복지서비스, 복지기관 이용으로 분류하였다.

1.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더미 변수 및 코딩 변환하여 이차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Version 22.0을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여가활동의 내적/외적제약 요인과 여가활동의 수동/능동적 참여유형 간의 피어슨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1.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 비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다. Table 1 수동/능동적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따라 성별, 나이, 학력, 장애유형, 가구유형, 결혼 유무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직업 유

무에 따라 수동적 참여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능동적 참여유형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2 내적/외적제약 요인과 수동/능동적 여가활동 참여유형 간의 상관관계

여가활동의 수동/능동적 참여유형과 일반적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경증 장애, 고등학교, 대학 이상의 학력, 혼자서 외출 여부, 일상생활활동,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가구소득, 교통수단 이용 어려움 수준, 정보통신기기 사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중증 장애, 무학, 초등학교의 학력, 치료 이용여부와 장애인보조기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수동적 참여유형과 중학교 학력, 복지서비스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능동적 참여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2

Table 1. Leisure activ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6555)

Variables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Relaxed leisure [†]			Active Leisure [†]		
		M ± SD	t/F	p-value	M ± SD	t/F	p-value
Gender	Male	2.36±1.42	13.79***	.000	1.51±1.26	0.62***	.000
	Female	1.91±1.24			1.49±1.05		
Age	20 ~ 29	2.98±1.51	204.91***	.000	1.54±1.27	43.78***	.000
	30 ~ 39	3.05±1.60			1.71±1.46		
	40 ~ 49	2.90±1.56			1.83±1.33		
	50 ~ 59	2.40±1.42			1.64±1.20		
	60 ~ 69	2.06±1.24			1.56±1.09		
	≥ 70	1.62±0.96			1.24±1.02		
Education background	Uneducated	1.38±0.71	573.45***	.000	1.19±0.91	92.22***	.000
	Elementary	1.61±0.89			1.30±0.96		
	Middle	2.07±1.17			1.52±1.12		
	High	2.59±1.39			1.60±1.22		
	≥ University	3.50±1.58			2.07±1.17		
Disorder type	External physical	2.18±1.37	12.61***	.000	1.55±1.17	40.65***	.000
	Internal organs	2.31±1.42			1.53±1.20		
	Developmental	1.93±1.19			0.93±0.92		
	Mental	1.73±1.13			0.96±1.01		
Household type (Generation)	Alone	1.79±1.07	66.15***	.000	1.63±1.01	6.49***	.000
	One	2.03±1.27			1.45±1.14		
	≥ Two	2.37±1.46			1.48±1.24		
	Other	3.07±1.26			1.86±1.35		
Job status	Has a job	2.64±1.47	21.42***	.000	1.85±1.21	18.75	.85
	None	1.88±1.21			1.30±1.10		
Marital status	Married	2.32±1.42	12.23***	.000	1.57±1.21	6.38***	.000
	Single	1.92±1.22			1.39±1.09		

[†] Higher numbers indicate many levels of leisure activity. ***p<.001

Table 2. The correlations between Internal, External barriers and Leisure activity (N=6555)

Variables			Leisure activity	
			Relaxed leisure	Active Leisure
Internal barriers	Disability grade	Severely(1~2)	-0.13***	-0.22***
		Mild(3~6)	0.15***	0.24***
	Education background	Uneducated	-0.22***	-0.10**
		Elementary	-0.27***	-0.11***
		Middle	-0.02'	0.00
		High	0.18***	0.04***
		≥ University	0.39***	0.19**
	Going out		0.27***	0.40***
	Activities of daily living		0.27***	0.37***
Instrumental-Activities of daily living		0.33***	0.45***	
External barriers	Household income(average monthly)		0.11***	0.06**
	Rehabilitation		-0.08***	-0.02'
	Difficulty in using transportation		0.37***	0.39**
	Assistive device		-0.16***	-0.19**
	Data communication instrument		0.65***	0.40***
	Welfare service		0.06***	-0.00
	Welfare institution use		0.01	-0.01

*p<.05, ***p<.001

Table 3. Factors on Leisure activity by Internal, External barriers Regression Analysis (N=6555)

Variables			Leisure activity			
			Relaxed leisure		Active Leisure	
			β	t	β	t
Internal barriers	Disability grade	Severely(1~2)	0.01	0.69	-0.02	-1.07
		Mild(3~6)	0.03	1.77	0.03	1.48
	Education level	Uneducated	0.13	0.77	-0.01	-0.09
		Elementary	0.18	0.77	-0.06	-0.24
		Middle	0.19	1.03	-0.03	-0.17
		High	0.27	1.24	-0.06	-0.26
		≥ University	0.35	2.00'	0.02	0.11
	Going out		-0.00	-0.25	0.09	5.81***
	Activities of daily living		0.06	3.86***	0.02	1.22
Instrumental-Activities of daily living		0.00	0.45	0.19	8.93***	
External barriers	Household income(average monthly)		0.04	4.92***	0.03	3.58***
	Rehabilitation		0.01	1.59	0.02	2.47
	Difficulty in using transportation		0.10	8.40***	0.10	7.66***
	Assistive device		0.01	1.30	0.01	1.00
	Data communication instrument		0.47	39.24***	0.21	15.08***
	Welfare service		0.00	0.71	0.02	1.95
	Welfare institution use		-0.00	-0.32	0.05	5.09**
R ²			0.48		0.29	
Adjusted R ²			0.48		0.29	
F			359.86***		158.33***	

*p<.05, ***p<.001

1.2 수동/능동적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미치는 영향요인

여가활동의 내적/외적제약 요인의 항목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실시한 결과, 수동적 참여유형은 48%의 설명력을 보였으며(Adjusted R²=0.48), 회귀모형은 통계학적으로

로 유의한 수준을 보였다(F=359.86, p<.001). 능동적 참여유형은 29%의 설명력을 보였으며(Adjusted R²=0.29), 회귀모형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였다. (F=158.33, p<.001) Table 3

수동적 참여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내적제약

요인은 대학 이상의 학력($\beta=0.35, p<.05$),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beta=0.06,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적제약 요인은 가구소득($\beta=0.04, p<.00.1$), 교통수단 이용 어려움 수준($\beta=0.10, p<.00.1$), 정보통신기기 활용($\beta=0.47, p<.00.1$)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동적 참여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내적제약 요인은 혼자 외출여부($\beta=0.09, p<.00.1$),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beta=0.19,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적제약 요인은 가구소득($\beta=0.03, p<.00.1$), 치료 이용여부($\beta=0.02, p<.05$), 교통수단 이용 어려움 수준($\beta=0.10, p<.00.1$), 정보통신기기 활용($\beta=0.21, p<.00.1$), 사회복지 기관 이용($\beta=0.05, p<.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장애인의 여가활동은 건강과 복지뿐만 아니라 삶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학문적 분야이다[14]. 하지만 국내 장애인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15]. 본 연구는 국내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 촉진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여가활동 제약요인을 분류하고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국내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수동/능동적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차이를 보였다. 수동/능동적 여가활동 참여유형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장애유형, 가구유형, 결혼유무, 직업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김동원 (2017)과 윤은경 (2007)의 연구에서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수준 및 형태는 개인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여가활동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제약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8], 개인의 다양한 제약요인을 재배열하고 적절한 협상을 통하여 극복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19].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은 참여 혹은 비참여 형태 모두 개별적인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0]. 본 연구의 내적제약 요인은 장애 정도는 경증, 높은 수준의 학력, 외출 가능여부, 기본적

일상생활, 수단적 일상생활 그리고 외적제약 요인은 가구소득, 교통수단 이용 어려움 수준, 정보통신기기 활용 요인이 높을수록 여가활동 참여유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재활치료와 장애인보조기구 활용이 높을수록 여가활동 참여에 낮은 참여 비율을 나타냈다.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수준이 감소됨에 따라 재활치료에 참여하고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McAvoy (2001)는 장애인이 경험하는 지식수준, 경제적 어려움, 이동수단, 여가 서비스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여가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국내 장애인들의 내적제약 및 외적제약 요인이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동적 여가활동 참여유형의 내적제약 요인은 대학 이상의 높은 학력 수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그리고 외적제약은 가구소득, 교통수단 이용 어려움 수준, 정보통신기기 활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능동적 여가활동 참여유형의 내적제약 요인은 혼자 외출여부,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그리고 외적제약은 가구소득, 치료 이용여부, 교통수단 이용 어려움 수준, 정보통신기기 활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장애인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의 내적제약과 외적제약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협상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국내 장애인을 위한 여가활동은 인프라 형성 및 관련된 여가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22]. 이와 관련된 적절한 환경조성, 시설확충, 예산지원, 기본적 소득 보장 등의 정책적 검토와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23]. 또한 국내 장애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제약요인을 고려하고, 그들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가능한 수준과 범위 내에서 여가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접근방법 및 관리체계에 맞춘 초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스포츠와 같은 신체활동[24]뿐만 아니라 장애 및 여가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 인력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장애인과 관련된 정보, 생활하는 방식 등의 실태에 대하여 이해하고 포용하는 과정으로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25]. Henderson (1988) 등은 여가활동의 선택과 참여 그리고 만족스러운 여가활동 참여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제약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적제약과 외적제약 요인이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고 지지하고 있다. 또한 Alexandris (2002)는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개별적인 내적제약에 초점을 맞추어 적절한 여가동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사회적 관계 증진, 삶의 질 등의 향상을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장애인들은 동적인 여가활동 보다는 수동적 여가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23]. 하지만 수동적 여가활동에 비해 야외활동 및 스포츠와 같은 능동적 여가활동이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28].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인 기능수준을 위해 재활의 중요성과 기본 소득보장, 지역사회 이동수단, 정보 습득과 관련된 제약요인에 대하여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학제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요인들에 대해 종단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국내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과 포함되지 않은 요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적, 문화적, 환경적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장애 특성 및 유형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것이다.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장애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여가활동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설정할 수 있는 프로토콜 개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국내 장애인이 경험하는 제약요인을 파악하고 여가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2014 장애인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동적 여가활동 참여유형의 내적 제약 요인은 대학 이상의 학력, 일상생활 그리고 외적 제약은 가구소득, 교통수단 이용 어려움과 정보통신기기 사용이었으며, 능동적 여가활동 참여유형의 내적요인은 혼자 외출여부, 수단적 일상생활 그리고 외적제약은 가

구소득, 재활치료 여부, 교통수단 이용 어려움, 정보통신기기 사용과 복지시설 이용으로 나타났다. 국내 장애인들의 다양한 제약요인이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다양한 제약요인을 고려하고 적절한 여가활동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위해 여가와 장애에 관련된 두 학문적 주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검토와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5). *Disabled person Welfare law*. Law No 13663.
- [2]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4). *2014 Disabled People Status Survey*.
- [3] D. Y. Lee. (2014). A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index of the 5th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Disability & employment*, 24(3) 99-122.
- [4] P. J. Chang, L. Wray & Y. Lin. (2014). Social relationships, leisure activity, and health in older adults. *Health Psychology*, 33(6), 516.
- [5] J. Kim, M. Kim, E. MaloneBeach & A. Han. (2016). A study of health perception, disability acceptance, and life satisfaction based on types of leisure activity among Koreans with a physical disability.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1(3), 791-804.
- [6] R. Pagán. (2015). How do leisure activities impact on life satisfaction? Evidence for German people with disabilitie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0(4), 557-572.
- [7] D. Blacker, L. Broadhurst & L. Teixeira. (2008). The role of occupational therapy in leisure adaptation with complex neurological disability: a discussion using two case study examples. *NeuroRehabilitation*, 23(4), 313-319.
- [8] I. Brown. (2003). *Quality of life and disability: An approach for community practitioners*.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9] D. A. Francken & W. F. Van Raaij. (1981). Satisfaction with leisure time activit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3(4), 337-352.
- [10] D. W. Crawford & G. Godbey. (1987).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Leisure sciences*, 9(2), 119-127.
- [11] S. J. Schleien, M. T. Ray & F. P. Green. (1997). *Community recreation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Strategies for inclusion. PH Brookes Pub.

[12] B. Hawkins. (1997). Promoting quality of life through leisure and recreation. 1997. *Quality of Life: Application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2, 117-129.

[13] D. A. Kleiber. (1980). Free time activity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n college students: a preliminary analysi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3), 205-212.

[14] L. L. Caldwell & A. A. Gilbert. (2009). Leisure, health, and disability: A review and discussion. *Canadian Journal of Community Mental Health*, 9(2), 111-122.

[15] Y. H. Jeong.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Case of the Disabled Who Had Participated in Leisure Activities. *Tourism Institute of Northeast Asia*, 9(1), 215-233.

[16] D. W. Kim. (201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in life sports of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on community attachm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7), 305-313.

[17] E. K. Yun. (2007). *Influence of leisure activities participation by the adult disabled on life satisfaction : based on the disabled with physical disabilities and brain disorder* (Master's thesis). Catholoc University of Korea. Seoul.

[18] F. A. McGuire. (1984). A factor analytic study of leisure constraints in advanced adulthood.

[19] L. A. Raymore. (2002). Facilitators to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4(1), 37-51.

[20] T. Kay & G. Jackson. (1991). Leisure despite constraint: The impact of leisure constraints on leisure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4), 301-313.

[21] L. McAvoy. (2001). Outdoors for Everyone: Opportunities that Include People with Disabilities. *Parks & Recreation*, 36(8).

[22] D. G. Hong, H. Y. Jeong, J. H. Park, S. K. Kim. (2015). The Effect of a Leisure Motivation and Participation Restriction of Stroke Patients on Level of Leisure Activ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3(3), 15-24.

[23] C. K. Oh, I. H. Park & H. Jang. (2014). Intermediary Effect of Leisure Restriction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y Type of Leisure Satisfaction on Physically Disabled People. *Korea Academy of disability and Welfare*, 27-46.

[24] D. W. Kim. (2015). Wheelchair tennis has ever fusion of classroom participation of the physically disabled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exercise emotional and exercise commitm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6(4), 15-23.

[25] C. Aitchison. (2009). Exclusive discourses: Leisure studies and disability. *Leisure Studies*, 28(4), 375-386.

[26] K. A. Henderson, D. Stalnaker & G. Taylor.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barriers to recreation and gender-role personality traits for wome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0(1), 69.

[27] K. Alexandris, C. Tsobatzoudis & G. Grouios. (2002). Perceived constraints on recreational sport participation: Investigating their relationship with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and amotiv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4(3), 233-252.

[28] J. K. Lee, D. K. Kim & M. S. Lee. (2007). Influences of Leisure time and Leisure activity pattern according to implementation of 40-time workweek system on the changes of satisfaction with Leisure, job, and Life of Korean employe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6(2), 301-316.

임 영 명(Lim, Young Myoung)

[정회원]



- 2017년 2월 :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보건석사)
- 2017년 10월 ~ 현재 :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작업치료실
- 관심분야 : 작업치료, 지역사회, 보조공학, 라이프 스타일

• E-Mail : paulth@naver.com

차 태 현(Cha, Tae, Hyun)

[정회원]



- 2001년 2월 : 연세대학교 보건학사
- 2009년 2월 : 연세대학교 이학석사
- 2014년 2월 :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아동발달, 심리운동, 삶의 질, 신경과학

• E-Mail : taehyun@konyang.ac.kr